

SK, 일하는 이사회 만들기 본격화

이사회에 4개 전문위원회 신설 ... 지배구조 개선 실질적인 뒷받침

SK가 3월2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운영키로 결의했다.

신설되는 전문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 전략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4개이며, 사외이사가 주축이 돼 이사회에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전략위원회는 회사의 경영목표나 전략을 검토하고 투자계획을 심의하는 등 전략적 주요 의사결정 사안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인사위원회는 집행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대표이사 선임 사전심의, CEO 후보 육성방안 검토 등을 담당한다.

또 투명경영위원회는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심의와 윤리경영 사전검토,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정관 개정사항 검토나 이사회 운영규칙 개선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SK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한 것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며 일하는 이사회(Working Board of Directors)를 만들겠다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3/29>